

## 이탈리아 <팔레르모 클래식> 피아노를 위한 낭만

지중해의 쾌청한 날씨와 풍족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요리,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 등으로 유럽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의 중심도시 팔레르모에는 여름과 겨울마다 클래식 음악이 끊이지 않고 연주된다.

역사·문화·건축·미식 등으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지는 데에는 팔레르모 클래식(Palermo Classica) 페스티벌의 공이 크다. 2010년,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페스티벌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설립자이자 예술감독인 지롤라모 살레르노(Girolamo Salerno)는 팔레르모 클래식을 시칠리아를 넘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로 키워냈다. 그는 매년 8~9월 여름휴가 기간에는 음악 홀과 음악 시설이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여름에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 페스티벌을 만들었다. 그렇게 여름 한 시즌 축제로 시작된 공연은 제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유수의 젊은 연주자가 시칠리아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려왔다. 겨울 시즌에는 특히 클래식 음악 애호가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오직 피아노만 연주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며 유럽의 여러 페스티벌을 경험했지만, 피아노만으로 구성된 페스티벌은 쉽게 찾기 어렵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연 규모와 관객 동원력을 고려할 때, 오케스트라와 같은 대편성 연주회의 화려함에 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오로지 피아노 연주회로만 꾸며지는 팔레르모 클래식 페스티벌의 겨울 시즌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요일마다 세계 각국의 유명 피아니스트가 팔레르모의 유서 깊은 장소를 비롯해 피아노라는 악기와 공명하고 음악적으로 대화를 하기에 알맞은 장소에서 연주를 펼친다.

지난 2월 겨울 시즌에는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벨기에 피아니스트 줄리앙 리베어(Julien Libeer), 독일의 신예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우스(Elisabeth Brauß), 현대음악과 자작곡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룩셈부르크 출신 피아니스트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Francesco Tristano) 등 세계적인 연주자가 대거 출연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시에 독주회를 열었는데, 여러모로 특별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

## Italy <Palermo Classica> Romance for Piano

Palermo is the central city of Italy's southern island of Sicily. Almost all Europeans love this city because it greets visitors with its pleasant Mediterranean climate, delicious culinary delights, and different styles of buildings. The city has another goody in store: amazing classical music that you can hear all throughout summer and winter.

In this city known for its history, culture, architecture, and gastronomy, recently classical music has also been added to the list of things to enjoy. That is largely due to the Palermo Classica Festival. Girolamo Salerno, artistic director of the festival, founded it in 2010 and it is held in this beautiful Italian city. Leading the annual event all these years, he has made it a classical music festival that represents all of Italy, going beyond just Sicily. Mr. Salerno got the idea for the festival because he noticed that many music halls and facilities were closed during the summer holidays in August and September. So he decided to create a festival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who were often visiting the local area. Launched in the summer, the festival has attracted outstanding young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These performers play music of a variety of genres and at many locations within Sicily, naturally making Palermo Classica visible beyond just the local area. The festival has recently added its winter season with classical music lovers particularly in mind. During this time, you can only hear piano pieces being pla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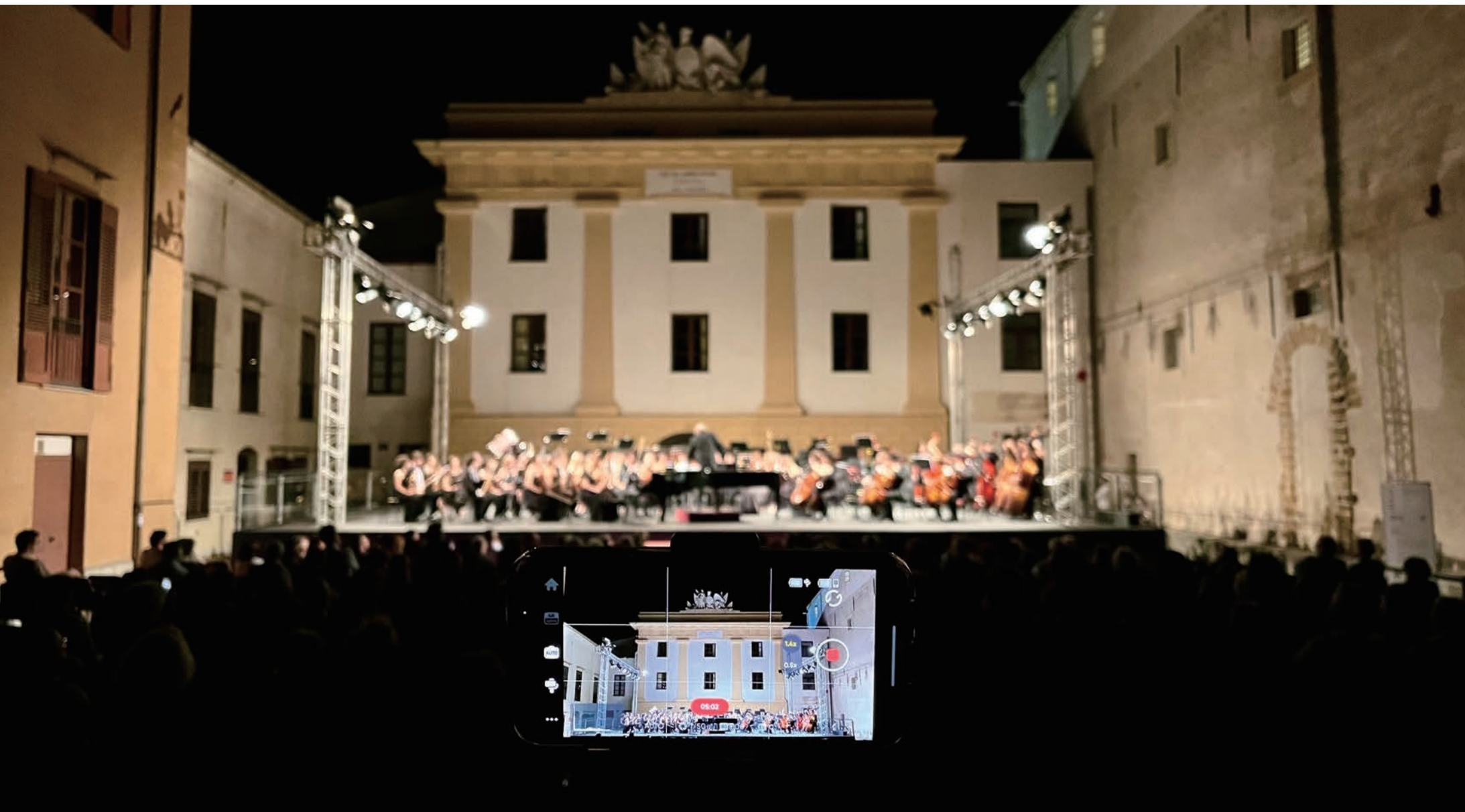
Living in Germany, I have experienced different festivals in Europe. However, piano-only festivals are quite rare. There may be many reasons for this. But above all, that would be probably because piano-only concerts would not compare with larger concerts like those with orchestras, in terms of their sizes and audience numbers. That makes the festival's piano-only winter season all the more special. Every Sunday from December to April, the world's most renowned pianists perform in the city's historic places and other venues that are fit for the melody of a piano and for having music inspired discussions.





이번에 내가 공연한 프로그램은 <Love & Poison - Ballet without dancers>였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와 '페트루슈카',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등 20세기의 음악으로, 일종의 음악극처럼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미션 전과 마지막 곡을 제외하고는 휴지 없이 곡과 곡 사이에 간주곡을 연주했다. 여타 독주 회보다 연주 시간이 길어져 관객에게도 집중력이 요구되었기에 기대만큼 걱정이 컸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이번 공연을 통해서 아티스트의 이상을 관객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주 끝에 브라보를 외치기에 앞서 아티스트의 다음 숨을 따라가는 관객의 집중력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최고였다. 연주자로서 이러한 페스티벌에 참여할 때면 피아노와 음악을 향한 관객의 특별한 사랑을 느낀다. 겨울 시즌 동안 매주 연주회를 찾아 기대와 설렘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는 관객을 보며 마음이 든든했다.

In February this year, the festival's winter season gathered together numerous world-renowned musicians: Julien Libeer, Belgian pianist actively performing throughout Europe, Elisabeth Brauß, a German young pianist, and Francesco Tristano, a pianist from Luxembourg boasting a wide spectrum of his repertoire which includes contemporary music and his own compositions. And I also hosted a solo concert at that time, which was a special and meaningful experience for me in many ways. My concert was called <Love & Poison - Ballet without Dancers>. It was more similar to a musical theater performance, sharing with the audience 20th-century pieces such as <The Firebird> and <Petrushka> by Stravinsky, <Romeo and Juliet> by Prokofiev and the <Gymnopédies> by Erik Satie. Except for the piece



played just before the intermission and the last one, there was no pause between any two pieces, which were connected by an intermezzo instead. As the performance time was longer than other solo concerts, demanding the audience's sustained attention, I was worried if they would be able to stay focused throughout. However, those worries were unfounded. Through this performance, I realized that the audience can complete the artist's ideal. The concentration of the audience, following the artist's every breath before erupting into applause at the end, was beyond my imagination. Whenever I attend such a festival as a musician, I see the audience's special affection for the piano and music. Seeing the eager and excited faces of the audience attending concerts every week during the winter season filled my heart with joy and assurance.

The majority of the audience at the local festival were Italians, and I noticed that they welcomed the music with an open heart and expressed their emotions freely, much like audiences in Korea. This warm reception is heartening for performers. Seeing the audience leaving the hall with happiness, I couldn't help but think about how much of a gift it is to encounter the performances of numerous pianists over five months in a city like Palermo.

Mr. Salerno tries to make the festival a special occasion by inviting outstanding pianists and diversifying programs for the winter





지역상 페스티벌 청중 대부분이 이탈리아인이었는데 음악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은 감동을 마음껏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관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연주자에게 따뜻한 환영으로 다가온다. 행복한 모습으로 홀을 떠나는 관객을 보며, 팔레르모라는 도시에서 다섯 달에 걸쳐 수많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연주자만큼이나 관객에게도 얼마나 선물 같은 일인지 생각했다.

페스티벌 음악감독 지롤라모 살레르노는 겨울 시즌 공연을 위해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섭외하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일까지 모두 관여해 더욱 특별한 페스티벌이 되도록 노력한다. 덕분에 그는 지역 음악 애호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음악감독이 됐다. 그가 공연 전후로 관객과 인사하며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그만큼 관객과 페스티벌의 유대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다 시즌마다 찾아오는 마니아 관객도 꽤 보였다. 어떤 페스티벌이든 좋은 연주자를 초청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주최자와 훌륭한 연주자로 관객을 매료하는 연주자,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회에 오는 관객, 이 3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오래도록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팔레르모 클래식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불거리, 들을 거리, 먹을 거리가 풍부한 곳',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연주회장소와 그곳을 둘러싼 역사적 장소는 방문하는 이들에게 한층 더 특별한 분위기로 다가온다. 이는 연주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숙소에서

season. Thanks to such efforts in the local area, he has become classical music lovers' favorite music director. Before and after a performance, he talks to the audience casually. This means that the festival organizers and visitors have a closer and friendly relationship. Moreover, the festival has quite a few fans who come to the event every season. Reflecting on Palermo Classica, I realized a festival needs three essential elements for it to be cherished for a long time, it requires the perfect combination of organizers who invite talented musicians and plan engaging programs, performers who captivate the audience with their splendid performances, and audiences who attend the concerts with a genuine love for music.

Palermo Classica is even more special because it takes place in Palermo, Sicily, where you have so many things to see, hear and eat. The concert venues and surrounding historic sites generate a particularly special atmosphere. When I left the hotel and headed to the concert hall, I saw beautiful buildings on the way. These buildings inspired me greatly, making me feel like I was in the middle of time traveling. The scrumptious food, made with the rich ingredients of Sicily, was a perfect match. Gelato and sweet desserts

연주장까지 아름다운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길은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해 좋은 영감이 되었고, 맛있는 음식은 시칠리아의 좋은 재료와 풍족함을 느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연습 도중 먹는 젤라토와 달콤한 디저트는 고된 연습과 연주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한 방에 사라지게 했다. 연주가 일이 아닌 축제처럼 느껴져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한 가지 더, 이번 연주를 통해 한류를 체감할 수 있었던 점도 흥미로웠다. 연주를 마치자 몇몇 관객이 한국식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아가 하면,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던 관객분 중에는 상당수가 한국 문화, 특히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한국인인 나보다도 더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알고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문화에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인식되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이탈리아의 열렬한 클래식 마니아에게 칭찬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할 수밖에. 예술감독 지롤라모 살레르노도 “지금까지 페스티벌에 다양한 국적의 음악인이 참여했는데 특히 한국 음악가와 한국 음악교육에 대해 깊은 애정이 있다.”고 말했다.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큰 유럽, 특히 대작곡가를 여럿 배출한 이탈리아 음악계에서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으니 스스로도 한국 음악가의 비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여름, 연주회가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여긴 데서 시작된 팔레르모 클래식가 페스티벌은 화려한 라인업의 여름 시즌뿐만 아니라 유럽에 몇 없는 피아노 페스티벌로 기획된 겨울 시즌까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페스티벌이다. 위대한 역사적 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팔레르모에서 열리는 팔레르모 클래식가 페스티벌이 이제는 유럽을 대표하는 페스티벌 중 하나가 됐다. 확실한 비전을 지닌 예술감독과 최고의 음악인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품고 찾아오는 관객까지. 앞으로의 14년, 그리고 그 후까지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길 응원하며 돌아오는 12월 1일 겨울 시즌의 오프닝 연주로 다시 서게 될 팔레르모 클래식가 페스티벌을 기다려본다.

글. 한지호 피아니스트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현재 독일을 기반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연주한다.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보유한 독특한 연주자로 평가받는다.

사진 제공. <팔레르모 클래식가>

enjoyed during breaks in rehearsals quickly melted away the fatigue accumulated from intense practice and performance travels. It felt more like a festival than a job, creating unforgettable memories.

One more thing to share! It was also interesting to feel local people's interest in Korean culture. After my performance, some of the audience performed the finger heart gesture in the Korean way. Others greeted me backstage and many of them said that they liked Korean culture, especially Korean TV series and movies. Seeing people who knew more about Korean films and dramas than I did and discussing the artistic merits of the works made me realize how high the interest in our culture is. Seeing this, I realized how much they we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It is true that I felt proud as a Korean in other regions where people consider Korea a cultural superpower. But I felt all the more flattered that Italian fans of classical music expressed their enthusiasm. Mr. Salerno also says, “Our festival has invited musicians of different nationalities and we have a particular affection for Korean musicians and music education.” Hearing positive evaluations of Korean classical music in Italy, a country with a proud tradition of producing great composers, made me wonder what the secret of Korean musicians is.

The Palermo Classica Festival started as its artistic director found it regrettable to have no concert in summer while the city was full of tourists. It is a festival made of love for music, offering not only its summer season with famous musicians but also its piano-only winter season, which is rare even in Europe. Held in Palermo, a city of great cultural heritage, beautiful nature and delicious food, Palermo Classica has become Europe's representative festival. With a visionary artistic director, top-tier musicians, and audiences filled with love and anticipation for music, the festival promises to continue thriving in the years to come. Personally, I'm rooting for the festival's continued success and I can't wait to perform at the opening of the festival's winter season on December 1!

Author. Chi Ho Han (pianist)

Chi Ho Han is a winner of the world's prestigious competitions, Currently based in Germany, he performs actively throughout Europe and Asia. He has been acclaimed as a unique musician with a wide repertoire.

Photo by. <Palermo Classica>